中國語文學 第50輯(2007. 12) 213-250쪽

陶淵明의 <飮酒>詩에 나타난 人生의 意味

尹 壽 榮*

<目 次>

一. 序 言
二. 陶淵明의 <飮酒>詩에 나타난 人生의 意味
1. 人生과 選擇－飮酒와 世間名
2. 孤獨과 人生
3. 是非와 人生
4. 人生과 選擇－仕隱之間
5. 人生과 選擇－身後名과 枯槁 사이
6. 隱遁과 人生－두 隱士
7. 人生과 選擇－醉醒之間
8. 現實과 理想 사이
9. 人生의 苦惱－默默之間
10. 亂世 속의 人生
三. 結 語

一. 序 言

陶淵明은 알다시피 魏晉時代의 대표적인 시인이며, 屈原의 뒤를 이어 中國文學史에서 그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가 남긴 詩文은 人生과 自然을 가장 깊이 있고 아름답게 결합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후세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亂世文人의 한 典範이 되고 있다. 그는 老莊思想의 無爲自然이라는 삶의 자세를 그의 시문 속에 自然스럽게 녹아들게 했다. 그의 인생이 곧 자연과의 융합이었으며, 그의 시문은 그 융합의 반영이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특히 陶淵明의 <飮酒>시가 지니는 文學思想의

*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www.kci.go.kr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飮酒>시가 그려내고자 하는 인생의 의미이며, 지식인 도연명이 바라보는 세상의 의미이다. 생각건대 문학이란 결국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살펴보는 작업일 것이다. 이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면서도 난해한 질문이기도 하다. 시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독특한 視線으로 그가 살아가는 世上을 바라보고자 하며, 그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반추하고자 한다.

그의 시는 思想性을 지니고 있으며, 깊은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의 시는 人生詩라고 할 수 있으며, 설사 전원을 묘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전원의 묘사가 아니라, 그 속에는 참된 인생의 고뇌와 자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전원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도연명은 시를 통하여 난세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자적을 「永懷」라는 형식을 빌려 주로 묘사하고 있다.

필자는 도연명의 <飮酒>시 10수에 대하여 일찍이 人生과 自然觀을 중심으로 그 개략을 살펴본 적이 있으며[1], 본고는 필자의 그 나머지 10수에 대한 고찰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孟二冬의 ≪陶淵明集譯注≫를 참고하였으며, 각 편마다 맹이동의 도연명 시 전체에 대한 요약문을 참고로 부기해 두었다.

二. 陶淵明의 <飮酒>詩에 나타난 人生의 意味

1. 人生과 選擇－飮酒와 世間名

도연명은 <飮酒>시 20首 중의 제3수를 통하여 道의 世界의 추구와 人生無常의 비애를 결합시켜나가면서 그의 독자적인 인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 尹壽榮, <陶淵明의 飮酒詩에 나타난 人生과 自然觀>, ≪中國學論叢≫, 17집 (韓國中國文化學會, 2004.6), 27-52쪽.

www.kci.go.kr

道喪向千載, 道가 사라진지 천년이 되어 가는데
人人惜其情. 사람들은 각기 자기 욕심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
有酒不肯飮, 술이 있어도 마시려 들지 않고
但顧世間名. 그저 세상에서의 명성만 돌보고자 한다.
所以貴我身, 내 육신이 귀한 것도
豈不在一生. 어찌 한번 뿐인 목숨 때문이 아니겠는가?
一生復能幾, 한번 뿐인 목숨이 또 얼마나 되리?
倏如流電驚. 번개처럼 빠르게 흘러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鼎鼎百年內, 바쁘게 보내는 백년 인생,
持此欲何成. 이것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2)]

淸의 楊雍建은 이 시에 대하여, 「시어마다 해맑고 둥글게 비치는 달빛 같다(語語淸澈圓映)」[3)]라고 말했다. 이 淸澈圓映이라는 말은, 이 詩 속에 담겨져 있는 道喪、飮酒、人生無常 등의 비애로운 정서와 더불어 淸遠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것은 시인 李炯基가 <들길>이라는 시 가운데서 노래한,

아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르는 그 絶望을
비로소 무엇인가 깨닫는 심정이
왜 이처럼 가볍고 서글픈가.[4)]

라는 이미지, 곧 「가볍고 서글픈」 이미지와 서로 흐름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이 淸澈圓映은, 人生無常의 비애 속에서, 그리고 그 숨 가쁜 흐름

2) 맹이동은 이 시의 개요를,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명리만 좇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시인의 달관、소요자적하는 인생의 자세를 나타내었다.(這首詩通過對那種只顧自身而追逐名利之人的否定, 表明了詩人達觀而逍遙自任的人生態度)」고 요약했다.(孟二冬, ≪陶淵明集譯注≫, 吉林文史出版社, 1996, 長春. 148쪽)
3) 淸、楊雍建評選,≪詩鏡≫10,≪晉, 第三≫(古典文學硏究資料彙編, ≪陶淵明資料彙編≫, 北京: 中華書局, 2004. 164쪽)
4) 李炯基의 詩 <들길>의 부분. (권영민 엮음, ≪해방 40년의 문학≫, 3, 詩, 서울: 민음사, 1985. 109쪽)

www.kci.go.kr

속에서 무언가 깨닫고자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일말이나마 무언가 깨닫는 바가 있는 그 순간 느끼게 되는 심경을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道喪은 道[眞理]가 상실된 난세상황을 가리킨다. 「道喪向千載」는 일차적으로는 周代 이후 지속적으로 펼쳐진 난세상황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에 부단히 지속되고 있는 난세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도연명은 春秋시대를 중심으로 그 이전을 治世, 그 이후를 亂世로 구분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도연명이 치세로 간주했던 上古時代도 도연명 상상 속의 소망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앞서 예를 든 시인 李炯基는 <가을變奏曲>이라는 시 가운데서, 「언제는 戰國時代 아닌 때가 있었던가」[5]라고 노래하였는데, 시인의 상념 속에는 인류의 역사가 곧 난세의 역사라는 의식이 담겨 있다. 수천 년을 이어가는 인류의 역사를 道喪의 역사、난세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를 난세의 역사로 만들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점에 대하여 도연명은 인간의 「惜其情(私心、私利私慾)」을 들고 있다. 孟二冬은 惜其情에 대하여, 「자기의 감정을 아끼는 것, 곧 단지 개인적 사욕만 돌아보는 것(吝惜自己的感情, 卽只顧個人私欲)」[6]이라고 해석한다. 세상 사람들은 제각기 여러 가지 욕망 속에 묶여 살아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욕망은 세간의 명성[世間名]이다. 술이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으려는 것도, 바로 이 世間名 때문이다. 그것은 현실에 집착하는 마음이며, 超現實의 世界[道]를 추구하는 飮酒와 지향하는 바를 달리한다. 요컨대 그 世間名은 黃文煥이 「道만 바라볼 뿐 명성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면, 음주의 경지를 이해하지 못한다(非見道忘名人, 不解飮酒)」라고 지적했듯이, 음주의 의미를 체득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7]

도연명은 현실세상의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인생 전체를 바라볼 것을 권하는데, 그것은 「所以貴我身, 豈不在一生」라는 생명의 一回性 때문이다.

5) 李炯基, ≪돌베개의 詩≫(서울: 文苑社, 1971), 35쪽.
6) 孟二冬, 148쪽.
7) 明、黃文煥≪陶詩析義≫卷3. (≪陶淵明資料彙編≫, 163쪽)

www.kci.go.kr

생명의 일회성이야말로 너무나 고귀하여 世間名과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근거이다. 사실 이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물과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살듯 이 점을 망각하며 산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 전체、세상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고마운 점 가운데의 한 가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 전체、세상 전체를 바라보게 해준다는 점일 것이다. 인생 전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죽음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 전체 나아가 죽음까지도 바라보게 하고, 그리하여 達觀하게 한다.

도연명은 뒤이어 「一生復能幾, 倏如流電驚」이라는 시구를 통하여, 인생의 소중함을 재차 강조한다. 인생은 한번 밖에 살 수 없기에 「一生」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한번 뿐인 인생조차도 빠르게 지나가기가 번갯불 같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인은, 인생과 세상을 남달리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도연명은 인생의 무상함을 몹시 슬퍼하여, <그림자가 육신에게 답하다(影答形)>라는 시 가운데서는 심지어 「이를 생각노라면 五情이 끓어오른다(念之五情熱)」[8]고 노래하기까지 했다. 그의 심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본다면, 世間名과 一回性의 생명이 지닌 가치는 모래 한줌과 금싸라기 한줌의 대비 같은 것이다.

「鼎鼎百年內, 持此欲何成」에서, 鼎鼎百年은 부귀영화를 추구하고자 허둥대면서 보내는 백년이며, 도연명은 이것으로 필경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도연명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했지만, 막상 바로 그런 말을 한 그가 中國文學史에서 불멸의 자취를 남겼다. 도연명은 明의 黃文煥이 지적한 「명성을 돌아보는 자는 필경 이름을 이룰 수 없는 자(顧名者, 竟非能成名者)」[9]라는 점을 스스로 실증한 인물이 된 셈이다.

8) 孟二冬, ≪陶淵明全集≫(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6. 48쪽.
9) 明、黃文煥≪陶詩析義≫卷3. (≪陶淵明資料彙編≫, 163쪽)

www.kci.go.kr

2. 孤獨과 人生

도연명은 <飮酒>시 제4수를 통하여 난세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독한 심경을 한 마리 길 잃은 새에 비유하여, 그 고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栖栖失群鳥,	길 잃어 불안한 새 한 마리
日暮猶獨飛.	日暮에 아직도 홀로 날고 있다.
徘徊無定止,	배회해보지만 머물 곳 없다.
夜夜聲轉悲.	밤마다 울음소리 슬픔으로 젖어든다.
厲響思淸遠,	슬피 우는 소리는 맑고 아득한 경지를 그리워한다.
去來何依依.	오고가는 동안에 그리움만 설렌다.
因値孤生松,	이리하여 고독한 푸른 소나무를 만나게 되었으니,
斂翮遙來歸.	날개를 거두어 멀리서 돌아왔다.
勁風無榮木,	거센 바람에 나무들 시들었으나
此陰獨不衰.	이 나무 그늘만은 홀로 시들지 않았다.[10]
託身已得所,	몸을 맡길 곳 이미 얻었으니
千載不相違.	천년 동안 서로 어긋남이 없으리라.

이 작품은 전6구와 후6구로 서로 엄격한 對稱을 이루고 있다. 전6구는 失의 세계를, 후6구는 得의 세계를 각각 묘사한다. 得의 기쁨을 절실하게 체득하려면 먼저 失의 슬픔 속에 깊이 젖어들어 보아야 하며, 失의 슬픔이 절실할수록 得의 기쁨은 커지게 된다.

이 시 가운데는 비애의 정서가 서려져 있다. 그 비애는 失群、獨飛、無

10) 孟二冬은 이 시의 개요를, 「전편이 모두 비유이다. 무리 잃은 외로운 새를 자신에 비유한다. 전반부 6구는 길 잃고 배회하는 정경을 묘사하고, 후반부 6구는 돌아와 몸을 의지하는 정경을 묘사한다. 또한 외롭게 자라는 소나무를 귀은의 장소에 비유하여, 시인의 굳은 귀은의지와 고결한 인격、절조를 나타낸다(這首詩通篇比喩, 以失群之孤鳥自喩, 前六句寫迷途徘徊, 後六句寫歸來託身. 又以孤生松喩歸隱之所, 表現出詩人堅定的歸隱之志和高潔的人格情操)」라고 요약했다.

www.kci.go.kr

定、轉悲、厲響 등의 시어들을 통하여 은연중에 스며 나온다. 남들은 다 부귀영화를 얻기 위하여 지조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도연명은 길 잃은 새처럼 외롭게 방황하고 배회하며 울고 있다. 그 새는 도연명 자신의 형상이며, 그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과는 반대방향으로 외롭게 걸어간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인이란 누구인가?」하는 점을 생각해보게 된다. 즉 시인이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홀로 자신이 정한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사람. 무모하고 어리석으며 위험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기꺼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인은 대체로 「비애로운 존재」가 되기 쉬우며, 그 비애의 결정체가 바로 詩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애는 아픔을 동반하게 된다. 곧 淸의 方熊評이 「절조를 택하고 아픔을 취한다(擇節取苦)」[11]라고 말한 그 擇節取苦의 아픔이다. 시인은 그 아픔을 홀로 삭여야만 하며, 홀로 그 자신만의 숨을 쉬고 그 자신만의 생각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 시 가운데서 특히 「厲響思淸遠, 去來何依依」라는 두 시구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맹이동은 이 「厲響」이라는 시어를 「우는 소리가 격정적이고 아득하다(鳴聲激越)」로 해석했다. 시는 시인이 토해낸 울음의 자취[鳴跡]다. 울음소리(鳴聲)는 시 자체이다. 또 시의 속성은 「激越」이다. 激越은 激하다는 의미와 遙遠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두 글자는 도연명의 시인기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비분강개한 정서를 항상 가슴속 깊이 담은 채로 살아갔던 인물이다. 그가 남달리 荊軻를 숭모했던 이유도 바로 이에 기인한다. 郭銀田은 ≪田園詩人 陶淵明≫가운데서, 「도연명의 성격은 첫째가 『剛』이다(陶潛質性, 第一詩『剛』)」[12]라고 지

11) 淸、方熊評 : ≪陶靖節集≫卷3. (≪陶淵明資料彙編≫, 166쪽)

12) 郭銀田, ≪田園詩人 陶淵明≫(臺北: 桂冠圖書公司), 1981. 2쪽.
郭銀田은 또 같은 책에서, 「도연명이 소극적인 인물이 아니고 적극적인 인물이며, 염세적인 인물이 아니고 인간세상을 사랑하는 인물이라는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陶淵明의 性格은, 첫째가 『剛』이다. <戊申歲, 遇火>에서 말했다. 「貞剛自有質, 玉石乃非堅.」<與子儼等疏>에서도 말했다. 「性剛才拙, 與物多忤.」 성격이 강직

www.kci.go.kr

적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 강직함이 곧 격정과 연결된다. 또 도연명은 일생을 두고 淸遠의 경지를 지향했으며, 이 淸遠은 그의 시적세계[意境]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자연 속에서 먼지로 자욱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청원한 세계를 추구하고자 歸隱했으며, 그곳이 바로 그의 고향 전원이었다.

또한 「去來何依依」라는 시구 역시 「시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또 다른 해답을 제시한다. 이 시구의 정서를 펼쳐보면, 시인은 「이 세상에 대하여 절절한 그리움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세상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마음이 파르르 떨며 설레이는 사람」이다. 예컨대 시인 千祥炳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의 <歸天>을 생각해본다면 이 말을 납득하게 될 것이다. 천상병은 이 시 가운데서,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13)

라고 모진 고난을 겪은 시인답지 않게 이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전하고 있다. 시인은 그리움이 설레는 정서 때문에, 언제나 오고가는 동안에도 이 인생과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거둘 수가 없다는, 그런 정서가 바로 이 시구 속에 스며들어 있다.

「勁風無榮木, 此陰獨不衰」라는 두 시구에서, 거센 바람[勁風]이 부는 세상은 난세이다. 난세에 처하여 살아간 도연명은 시들지 않는 나무[榮木]가 없는 현실적 세상에 대하여 낙담한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시들지 않고, 조락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어주는 존재가 「이 나무 그늘만은 홀로 시들지 않았다」고 하는 소나무이다. 이 소나무는 난세에 처하여

했기 때문에, 1) 庸俗과 타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쪽.

13) 千祥炳,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서울: 오상출판사), 1988. 75쪽.

www.kci.go.kr

숨어 살아가는 은사를 비유한다. 元代散曲에는 隱士들이 서로 만나 난세를 비탄하고 서로 위무하는, 그러면서도 자적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경이 자주 등장하며, 다음과 같은 馬致遠의 散曲作品 [雙調] 淸江引: 野興 제1수는 그 대표적인 例이다.

樵夫覺來山月底.	나무꾼이 잠깨어보니 산속의 달빛 아래 있다.
釣叟來尋覓.	釣叟가 그를 찾아온다.
你把柴斧拋.	자네는 도끼를 집어던지고
我把魚船棄.	나는 魚船을 잊어버린 채로
尋取箇穩便處閑坐地.	그저 편안한 자리 찾아 한가롭게 지내다 가세.[14]

3. 是非와 人生

도연명은 <飮酒>시 제6수를 통하여 人生에서 가장 삶을 고달프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是非觀에 대하여 그 독자적인 견해를 묘사하고 있다.

行止千萬端,	사람들의 行動擧止 수천수만 가지이니
誰知非與是.	그 누가 是와 非를 알 수 있을 것인가?
是非苟相形,	是와 非를 만약 서로 비교한다면,
雷同共譽毁.	附和雷同하여 좋으니 나쁘니 말한다.
三季多此事,	夏、殷、周 三代 말엽에는 이런 일 많았지만
達士似不爾.	賢達한 선비는 이와 같지 않았더라.
咄咄俗中愚,	아아, 俗中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且當從黃綺.	나는 응당 商山四皓의 뒤를 따라가고자 한다.[15]

14) 隋樹森, ≪全元散曲≫(北京: 中華書局), 2000. 243면.

15) 孟二冬은 이 詩의 槪要를, 「시인은 이 시 가운데서 분노하는 어조로 시비가 구분되지 않고 선악이 구분되지 않는 어두운 현실을 배척、책망하였으며, 아울러 商山四皓의 뒤를 따라 세상 밖으로 나가 은거하고자 결심한다(詩人在這首詩中, 以忿怒的口吻斥責了是非不分、善惡不辨的黑暗現實, 幷決心追隨商山四皓, 隱居世外)」라고 요약했다.

www.kci.go.kr

이 시는 是非에 대하여 말한다. 작품 서두부터 「行止千萬端, 誰知非與是」라고 하여, 세상의 是非를 알 수 없는 것은 수많은 行動擧止[行止]때문이라고 말한다. 천 가지 行止는 천 가지 是非를 만들어내고, 만 가지 行止는 만 가지의 是非를 만들어낸다. 이렇듯 世上의 是와 非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행동거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左傳≫에는 「인간의 마음이 서로 같지 않음은 그 얼굴이 서로 같지 않음과 같다(人心之不同也, 如其面焉)」[16]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인간의 마음이 각자의 얼굴처럼 서로 다르므로 是와 非 사이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인간들 사이에는 영원히 고독이 서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어지는 시구 「是非苟相形, 雷同共譽毁」에서, 是와 非를 만약 서로 비교[形]해보면 그 시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곧 드러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의 부화뇌동이 바로 그 원인이다. 부화뇌동은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부화뇌동이 시비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화뇌동하는 자는 시비판단의 엄격하고 정확한 척도 없이 대충대충 무책임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다. 항상 남의 말에 따라 칭찬했다 비방했다 한다. 明의 張自烈은 이 시구에 대하여, 「『雷同共譽毁』는 말세의 모습을 남김없이 포괄하고 있다. 시비는 모두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雷同共譽毁』, 括盡末世情態. 是非皆不可知, 如何如何!)」라고 차탄했다.[17] 그런데 기이한 것은 이와 같은 시비의 顚倒、混淆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찬란하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점이며, 이는 실상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다.

도연명은 특히 이런 일들이 世紀末에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를 「三季多此事」라고 묘사한다. 이때 이 난세의 시비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渦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達士」뿐이다. 「咄咄俗中愚」는 도연명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차탄이고, 「且當從黃綺」는 그의 은둔실

16) ≪左傳≫襄公 31년, (臺北: 藝文印書館), 1976. 41면.
17) 明、張自烈輯 ≪箋註陶淵明集≫卷3. (≪陶淵明資料彙編≫, 174쪽)

www.kci.go.kr

천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다. 淸의 張潮 등은 이 시비에 대하여, 「시비의 顚倒는 자고로 항상 그러하였다. 오직 스스로 알고 이해하여나감을 추구해야 할 뿐이다. 나는 응당 黃、綺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고 하니, 心과 事가 모두 드러나 있다(顚倒是非, 自古皆然, 惟求自知耳. 吾當從黃、綺, 心事畢現)[18]」라고 말했다. 「是非海의 風波」라는 말이 있듯이, 시비는 예나 지금이나 인류사회의 최대난제임이 분명하다.

4. 人生과 選擇－仕隱之間

도연명은 <飮酒>시 제10수를 飢餓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솔직담백하고 깊이 있게 묘사한다. 또한 出仕와 隱遁 사이의 선택이 지식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하여서도 언급한다.

在昔曾遠遊,	옛날 出仕할 때 멀리 行役을 떠난 적이 있었다.
直至東海隅.	줄곧 동해 해변까지 갔었다.
道路迥且長,	길은 하염없이 길어 끝이 없었고
風波阻中塗.	풍파가 길을 막기도 했다.
此行誰使然,	이 행역은 누가 그러라고 시켰던가?
似爲飢所驅.	마치 굶주림이 내몬 것 같았다.
傾身營一飽,	전력을 다해도 한 번의 배부름을 도모할 뿐이고
少許便有餘.	조금만 남아도 족히 다 쓸 수가 없었다.
恐此非名計,	그 행역은 아마도 현명한 생각은 아니었으리라.
息駕歸閑居.	관직을 버리고 歸隱하니 마음이 한가롭다.[19]

18) 淸、張潮、卓爾堪、張師孔同閱 ≪曹陶謝三家詩、陶集≫卷3. (≪陶淵明資料彙編≫, 174쪽)

19) 맹이동은 이 시의 개요를 「이 시는 이전에 일찍이 생계의 핍박으로 인하여 仕途에 발을 디뎌놓았을 때, 풍파와 고난을 겪은 일을 회상하고, 시인은 자신이 이미 공명부귀를 위하여 이렇게 고뇌하고 고달프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歸隱、閑居하여 순결한 節操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느낀다(這首詩回憶以往曾因生計所迫而涉足仕途, 經歷料風波艱辛之後, 詩人感到自己旣不爲求功名富貴, 而如此勞心疲力, 倒不如歸隱閑居以保純潔的節操)」라고 요약

www.kci.go.kr

세상에서 하루 밥 세끼 먹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건마는, 그러나 三旬九食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은, 실지로 그와 유사한 飢饉이 존재했던 사정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陶淵明은 戰爭이 頻發하였던 晉、宋 교체기를 살아갔으며, 또한 일생 동안 가난과 疾病 속에서 살아갔다. 이 시는 현실적 가난과 이상적 歸隱 사이의 갈등을 묘사한다. 趙泉山이 지적했듯이[20], 이 시는 도연명이 가난 때문에 出仕한 것을 서술했다. 출사는 대부분 治國平天下라는 이념의 기치를 내걸면서, 그와 더불어 현실의 부귀공명도 추구한다. 이념과 현실은 종이의 앞뒷면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억지로 떨어지게 하고자 할 때 고통이 생겨난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지식인의 갈 수 있는 길은 出仕와 歸隱 양자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出仕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出仕하지 못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在昔曾遠遊, 直至東海隅」라는 시구는 비록 出仕할 때 먼 길을 갔던 상황에 대한 회상이기는 하지만, 실상 인생길의 축도라고 볼 수도 있다. 인생길은 하나의 여로이며, 그 여로의 멀고 험난함에 대하여 일찍이 많은 시인들이 노래해오고 있었다. 예컨대 李白은 유명한 <蜀道難> 1수와 <行路難> 3수를 통하여 인생행로의 걷기 어려움을 묘사하였으며[21], 시인 李炯基는 인생행로를,

白紙에다 한 가닥
線을 그어보아라.
白紙에 가득 차는
線의 의미……[22]

했다. 157쪽.

20) 趙泉山이 말했다: 「이 작품은 그가 가난 때문에 出仕한 것을 서술한 것이다(趙泉山曰: 「此篇述其爲貧而仕」).」(宋、李公煥≪箋注陶淵明集≫卷3引. ≪陶淵明資料彙編≫. 181쪽)

21) ≪李太白全集≫(全三卷 중 第一卷), 臺北: 九思出版社, 1979. 162쪽과 189-192쪽 참조.

22) 「白紙에다 한 가닥/ 線을 그어 보아라./ 白紙에 가득 차는/ 線의 의미…….」

www.kci.go.kr

라고 노래하여, 「白紙 위의 한 가닥 線」으로 압축시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도연명이 行役으로 인하여 걸어갔던 그 길은, 「道路迥且長, 風波阻中塗」의 멀고 험난한 길이었다. 이제 歸隱한 이후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쓰고 있는 이 시에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인생길의 멀고도 험난함을 절감한다. 인생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것인가 하는 것은 노경에 이르러보아야 비로소 서서히 체득하게 된다. 남 보기에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개인이 지나간 인생길을 회상해보면 위험하고 치욕스러운 일[殆辱]이 일어났던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어서 도연명은 「此行誰使然, 似爲飢所驅」라는 시구를 통하여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제시하는데, 이 질문과 답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시구들, 곧 「傾身營一飽, 少許便有餘. 恐此非名計, 息駕歸閑居」라는 네 시구 속에서, 전력을 다 기울여 出仕해도 결국 얻는 것은 「한 번의 배부름[一飽]」 뿐이었다고 토로한다. 그 나머지 조금만 더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넉넉함[有餘]」로 인식되었다. 그런 상황의 도연명이었고 그런 심경의 도연명이었기에 出仕가 현명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관직을 버리고 歸隱閑居한다. 도연명은 出仕보다 歸隱、閑居가 더 바람직한 삶의 길이라는 인생의 결론을 얻는다. 인생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귀은、한거한 이후의 평화로운 삶이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淸의 吳瞻泰는 이 시에 대하여,

> 「『이번 길 누가 시킨 것인가?』라는 시구는 아주 냉랭하게 질문하였다는 점에서 기묘하다. 『마치 굶주림이 내몬 것 같았다』라는 대답은 매우 諧謔的이다. 그 기묘함은 似라는 글자 하나에 있다. 자신이 주인 아닌 것 같은 모습이다(『此行誰使然?』 問得冷, 妙. 『似爲饑所驅』 答得詼諧, 却妙在一似字,

(권영민 편, ≪해방 40년의 문학≫, 제3권, 詩. (서울: 民音社), 1985. 109-110쪽.)

www.kci.go.kr

若非己所得主者)」[23]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한 글자로 감정의 미세한 부분까지 포착하여 묘사해내었다는 점에서 도연명이 탁월하고, 또 이를 지적해낸 점에서도 오첨태가 탁월하다. 또한 恐이라는 글자에 대하여 淸의 何焯은, 「『그래도 이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닌 듯하다』라는 시구는, 固窮의 節操를 추락시킬까 두려워하는 것이다(『恐此非名計』 句, 恐墜固窮之節也)」[24]라고 해석한다. 도연명의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出仕와 歸隱 사이에서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인데, 실상 지식인에게 있어서 仕隱처럼 중대한 일이 있을 수 없다. 부귀영화와 빈천, 심하면 生과 死 사이의 取捨選擇이 강요되기 때문이다. 淸의 孫人龍은 이 점에 대하여, 「위태함과 치욕을 알기 때문에 족함에 머무를 줄 알게 된다, 固窮의 節操를 추락시킬까 두려워한다(知殆辱故知止足, 恐墜固窮之節耳)」[25]라고 말했다. 위태함과 치욕[殆辱]이냐, 부귀영화냐 하는 선택은 지식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심사숙고하고 고심참담하지 않을 수 없는 至難한 문제이다. 淸의 方東樹는 이 시에 대하여, 「固窮之名을 잃을까 두렵다고 말한다. 가슴속을 직설적으로 술회한다. 함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 글자도 없다.(言恐失固窮之名, 直書胸臆, 無一字客氣)」[26]라고 말했는데, 이 시의 내용 자체가 直說을 강요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5. 人生과 選擇－身後名과 枯槁 사이

陶淵明은 이 작품(＜飮酒＞시 제11수)을 통해서도 顔回와 榮啓期라는 두 人物을 例로 들면서 人生에서 飢餓가 節操 사이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

23) 淸、吳瞻泰輯 ≪陶詩彙註≫卷三. (≪陶淵明資料彙編≫, 181쪽)
24) 淸、何焯 ≪義門讀書記、陶靖節詩≫. (≪陶淵明資料彙編≫. 181쪽)
25) 淸、孫人龍纂輯 ≪陶公詩評註初學讀本≫卷二. (≪陶淵明資料彙編≫, 182쪽)
26) 淸、方東樹 ≪昭昧詹言≫卷四. (≪陶淵明資料彙編≫, 182쪽)

www.kci.go.kr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顔生稱爲仁,	顔回는 어질다고 일컬어지고,
榮公言有道.	榮啓期는 道心이 있다고 말한다.
屢空不獲年,	안회는 자주 쌀독이 비고 요절하기도 했으며,
長飢至於老.	영계기는 노경에 이를 때까지 굶주렸다.
雖留身後名,	비록 사후에 이름을 남기기는 했지만
一生亦枯槁.	일생 동안 초췌하고 청빈했다.
死去何所知,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 것도 모르게 되므로,
稱心固爲好.	마음에 드는 일은 응당 스스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客養千金軀,	짧디 짧은 인생은 비록 잘 섭생한다고 해도,
臨化消其寶.	죽음에 임하면 그 보물도 사라지고 만다.
裸葬何必惡,	裸葬이 어찌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것인가?
人當解意表.	사람은 응당 意表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27]

우리는 어떤 자세로 人生을 살아가야 하는가? 선한 사람이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악한 사람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를 해석해야 하는가? 이는 司馬遷이 일찍이 ≪史記≫에서 伯夷、叔齊를 예로 들며, 「하늘은 정의의 편인가, 불의의 편인가?(天道, 是邪非邪)」[28]라는 질문을 던진 이래로, 부단히 제기되어오는 질문이기도 하

27) 孟二冬은 이 詩의 槪要를, 「이 시는 인생에 대한 思考를 통하여, 시인의 인생관과 처세태도를 표명한 것이다. 시인은, 사후의 명성을 위하여 固窮、守節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행위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장수를 구하기 위하여 신체를 정성껏 섭생하는 행위 역시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죽고 나면 비단 신체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과 혼백도 자취를 감추게 되어 아무 것도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詩人은, 人生은 응당 마음에 흡족하고 소요자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며, 무언가를 꺼려야 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추구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這首詩通過對人生的思考, 表達料詩人的人生觀與處世態度. 詩人認爲, 那種爲追求身後的名聲而固窮守節、苦己身心的行爲是不值得的. 同樣, 那種爲希望能得長壽而認眞保養貴體的行爲也是不值得的. 人死之後, 不但貴體消亡, 而且神魂滅寂, 一無所知. 所以詩人主張人生當稱心適意、逍遙自任, 不必有所顧忌, 亦不必有所追求.)」라고 요약했다. 158-159쪽.

www.kci.go.kr

다. 이 시 속에서도 도연명은 顔回와 榮啓期라는 두 인물의 처지를 통하여 이와 비슷한 질문을 은연중에 던지고 있다. 안회는 字가 子淵이고, 春秋戰國시대 魯나라 사람이며, 孔子가 가장 아끼던 제자이다. ≪論語、雍也≫편에는 「안회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仁에서 어긋남이 없다. 나머지 제자들은 짧은 기간 어쩌다가 생각할 뿐이다(回也, 其心三月不違仁, 其餘則日月至焉而已矣)」[29]라는 기록이 보인다. 영계기는 春秋시대의 은사이며, ≪列子≫天瑞篇 가운데에,

> 「孔子가 泰山으로 유람을 다니다가 郰으로 가고 있는 榮啓期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사슴가죽으로 옷을 입고새끼로 띠를 맨 채로, 북을 치고 거문고를 타면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다. 『그대는 무엇이 그토록 즐거운가?』라고 공자가 묻자, 영계기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즐거워하는 바는 매우 많다. 하늘이 만물을 지음에 있어 사람으로 태어남이 존귀한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 이것이 첫 째 즐거움이다. 남녀 사이에 구별이 있어, 남자는 존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비천하게 여긴다. 그런데 나는 남자로 태어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둘째 기쁨이다. 사람 가운데 하루 혹은 한 달을 못살거나, 강보에 싸여 있을 때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구십 세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셋째 기쁨이다. 가난이란 士人이 늘 가까이 하는 바이다. 그리고 죽음이란 사람이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바이다. 선비의 일상인 가난에 처하고 인간의 종국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 무엇을 근심할 것이던가?』 그 말을 듣고 孔子가 말했다. 『그대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孔子遊於泰山, 見榮啓期行乎郰之野. 鹿裘帶索, 鼓琴而歌. 孔子問曰:『先生所以樂, 何也?』對曰:『吾樂甚多. 天生萬物, 唯人爲貴. 吾得爲人, 一樂也. 男女之別, 男尊女卑, 故男爲貴, 吾得爲男矣, 是二樂也. 人生有不見日月, 不免襁褓者. 吾旣已行年九十矣, 是三樂也. 貧者, 士之常也. 死者, 人之終也. 處常得終, 當何憂哉!』孔子曰:『善乎! 能自寬者也』.」[30]

28) ≪史記≫, 臺北: 鼎文書局, 1978. 2125면.
29) 楊伯峻 編著, ≪論語譯注≫雍也篇, (臺北: 明倫出版社, 1983.) 61쪽.
30) 莊萬壽 譯, ≪新譯 列子讀本≫ 天瑞篇, (臺北: 三民書局, 1991) 61쪽.

www.kci.go.kr

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시의 서두에 나오는 「顔生稱爲仁, 榮公言有道」라는 두 詩句는 顔回와 榮啓期에 대한 도연명의 인식을 보여준다. 안회는 어질다고 일컬어지고 있으며[稱爲仁], 영계기는 道가 있는 인물[有道]이라고 한다. 이 두 사람은 도연명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인물이다. 이어지는 시구인 「屢空不獲年, 長飢至于老」라는 시구를 통하여 도연명은 두 인물의 형상화를 위한 요소들을 제시했다. 안회의 요소는 「궁핍과 요절」이며, 영계기의 요소는 「궁핍 속의 자족」이었다. 또 이어지는 두 시구 「비록 사후에 이름을 남기기는 했지만, 일생 동안 초췌하고 청빈했다」는 두 사람에 공통된 특징인 身後名과 枯槁를 제시하였다. 身後名은 사후의 명성이고 枯槁는 현실의 궁핍이다. 사후의 명성은 현실의 궁핍을 요구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정신세계의 고고함은 물질세계의 궁핍함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연명은 정신세계의 孤高함을 지켜나가서 얻게 되는 사후의 명성조차도 부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明의 何孟春도 이 시구에 대하여,

> 「이는 도연명이 사후의 명성을 부러워하지 않았음을 노래한 것이다(此淵明不慕身後名也)」[31]

라고 말했는데, 도연명은 사후의 세계가 존재함을 믿지 않았으며, 또한 사후의 명성에도 그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자체였을 뿐이다. 그는 이 시에서 말하는 稱心 곧 자적하는 마음[適志]만 소중하게 생각했으며, 이는 역시 適志를 노래했던 장한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張翰은 어느 날 가을바람이 불자 吳나라의 菰菜、蓴羹、鱸魚鱠가 간절하게 생각나서,

>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자적하는 마음[適志]을 얻어 가지는 일일 것이다. 어찌 타향 땅에서 관직에 묶여 명리와 작록만을 추구할 것이던가?(人生貴得適志, 何能羈宦數千里以要名爵乎)」[32]

31) 明、何孟春註, ≪陶靖節集≫卷三. (≪陶淵明資料彙編≫, 182쪽)

www.kci.go.kr

라고 말하고는 돌아갈 수레를 마련하라고 명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王棠은,

> 「顔、榮은 명성을 보물로 삼았고, 客은 천금 같은 육신을 보물로 삼았지만, 모두 稱心을 보물로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顔、榮以名爲寶, 客以千金軀爲寶, 總不若稱心爲寶也)」[33]

라고 말했다. 이는 도연명이 추구한 稱心의 경지가 안회나 영계기가 현실적 고난을 참고 추구하였던 사후의 명성보다 더 낫다고 말한 것이다.

이 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시구들, 곧 「死去何所知, 稱心固爲好. 客養千金軀, 臨化消其寶. 裸葬何必惡, 人當解意表」는 도연명의 死生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死去何所知」라는 질문 속에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은 완결된다는 사생관이 담겨져 있다. 가능한 한 「흡족한 마음[稱心]」으로 살아야 한다는 도연명의 사상을 발견한다. 稱心은 도연명의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주제 중의 하나이며, 생전의 영혼과 육신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결합하는 경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며, 죽고 나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단정한다. 이는 陶淵明式의 生命肯定思想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는 裸葬을 긍정하고 지지한다. 「裸葬何必惡」이라고 질문하는 도연명으로부터, 그의 생명에 대한 경의와 비애를 동시에 감지한다. 意表는 「思惟를 초월한 진리[意之外的眞意]」이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도연명은 사람이 죽으면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야 하고, 자연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장은 새로운 자연물의 生成을 위한 필요하고 마땅한 생명체의 의무인 것이다.

---

32) ≪晉書≫卷92, 文苑列傳 중의 張翰傳, (臺北: 鼎文書局), 1979. 2383쪽.
33) 淸、吳瞻泰輯, ≪陶詩彙註≫卷三引. (≪陶淵明資料彙編≫, 183쪽)

www.kci.go.kr

6. 隱遁과 人生－두 隱士

도연명은 사람은 <飮酒>시 제12수 가운데에서 張摯와 楊倫 두 인물을 등장시켜 隱遁이 그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은둔은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과의 단절이며, 고상한 기풍을 지향하는 이념실천의 장이었다.

長公曾一仕,	長公은 일찍이 出仕한 적이 있었지만,
壯節忽失時.	장렬한 氣節로 인하여 문득 때를 잃게 되었다.
杜門不復出,	문을 닫아걸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았으니,
終身與世辭.	일생 동안 세상과 절연하였다.
仲理歸大澤,	仲理는 大澤 가운데로 돌아갔는데,
高風始在玆.	고상한 기풍이 그곳에 생겨나게 되었다.
一往便當已,	이미 한번 관직으로 나가보았으면 응당 그만 둘 일이다.
何爲復狐疑.	어찌하여 다시금 의심할 것인가?
去去當奚道,	그만 두었으면 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世俗久相棄.	세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를 속여오고 있었다.
擺落悠悠談,	세상의 황당한 이야기를 벗어나서
請從余所之.	청컨대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시라.[34]

이 시에는 張摯와 楊倫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한다.

張摯(字는 長公)는 張釋之의 아들이고 西漢시대 사람이며, ≪史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관직이 대부에 이르렀으며, 사직하였다. 세상의 흐름에 부응할 수 없었으며, 그리하여 종신토록 관직이 나아가지 않

34) 孟二冬은 이 시의 개요를, 「이 시는 張摯와 楊倫이 辭官、歸隱하고, 더 이상 관직으로 나가지 않았던 고귀한 기풍과 뛰어난 節操의 찬양을 통하여, 자신의 귀은하는 뜻에 비유하였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속의 속임을 당하지 말고, 홍진세상의 실상을 간파하고, 그를 따라 함께 귀은하여 농사지을 것을 권하고 있다.(這首詩通過讚揚張摯和楊倫辭官歸隱、不再復出的古風亮節, 來比況自己的歸隱之志. 并勸說世人不要再受世俗的欺騙, 當看破紅塵, 隨他一道歸去隱耕.)」라고 요약했다.

www.kci.go.kr

았다(官至大夫, 免. 以不能取容當世, 故終身不仕)」[35].

楊倫(字는 仲理)은 東漢 시대 사람이며, ≪後漢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楊倫은 字가 仲理이다. 陳留 東昏 사람이다. …… 郡의 文學掾이라는 관직에 있었다. 품은 뜻이 시대와 어긋났으므로, 더 이상 州郡의 命을 따르지 않았다. 大澤 가운데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제자가 천여 명에 이르렀다(楊倫, 字仲理. 陳留東昏人也. …… 爲郡文學掾. 志乖於時, 遂去職, 不復應州郡命. 講授於大澤中, 弟子至千餘人).」[36]

이 두 사람은 모두 일찍이 관직에 들어간 적이 있으며, 모두 서둘러 세상과 작별을 고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張摯(長公)는 일찍이 출사하였으나, 壯烈한 氣節로 인하여 홀연히 失時하고 말았다. 失時란, 「비유컨대 시대라고 하는 배(혹은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그는 杜門不出하고 일생 동안 세상과 작별을 고한 채 살아갔다. 이 「杜門不復出」와 「終身與世辭」라는 두 시구는 張摯의 성격이 지니는 강직함과 오연함을 보여준다.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시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壯烈한 氣節」이라는 말 역시 시인다운 풍모를 보여준다. 또한 楊倫(仲理)은 관직을 버리고 大澤으로 가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高風始在玆」와 「弟子至千餘人」이라는 기록으로부터, 그의 유능함과 인품을 가히 짐작하게 된다. 또한 「一往便當已, 何爲復狐疑」라는 시구는, 전통사회 지식인이 겪어야 하는 부정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仕隱 간의 갈등과 고뇌를 표현한 것이다.

淸의 邱嘉穗는 이 시에 대하여,

> 「또 옛사람 가운데 出仕했다가 歸隱한 인물을 빌려, 그가 彭澤令을 그만두고 歸隱한 본심을 풀어본 것이다(此又借古人仕而歸者, 以解其辭彭澤而歸隱之本懷)」[37]

35) ≪史記≫, 卷102, 張釋之馮唐列傳, (臺北: 鼎文書局), 1978. 2757쪽.
36) ≪後漢書≫, 卷79 上, 儒林列傳, (臺北: 鼎文書局), 1978. 2564쪽.

www.kci.go.kr

라고 말했다. 그리고 淸의 溫汝能은 이 시 가운데 나타난

「어투가 잔소리(혹은 불평불만)에 가깝다(辭近牢騷)」[38]

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마디 가운데에는 매우 세상을 오연하게 바라보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末數語頗有傲世之意)」[39]

고 했다. 잔소리(혹은 불평불만)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長公과 仲理에 대한 서술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그리고 「매우 傲世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마지막 몇 마디는, 「擺落悠悠談, 請從余所之」라는 마지막 두 시구를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고,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오연한 기세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다. 「去去當奚道, 世俗久相棄」라는 시구나, 「擺落悠悠談, 請從余所之」라는 시구에서, 도연명은 세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은 世上이 자신을 기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孟二冬은 悠悠談을 「세속에서 시비를 함부로 논하는 한가롭고 황당한 이야기(世俗妄議是非的悠謬之談)」[40]라고 풀이한다. 도연명은 이 세상은 결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며, 그러므로 나를 따라 깊은 林泉江海 속으로 들어가자고 권한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을 품지 않고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다. 淸의 陶必銓도,

「결어는 가히 깊이 생각할만한 시구이다. 세속은 悠悠하여, 榮 아니면 利이다. 기로에서의 미혹됨은 이 때문일 경우가 많다(結語可思. 世俗悠悠,

37) 淸、邱嘉穗 ≪東山草堂陶詩箋≫卷三. (≪陶淵明資料彙編≫, 185쪽)
38) 淸、溫汝能纂集 ≪陶詩彙評≫卷三. (≪陶淵明資料彙編≫, 185쪽)
39) 上同.
40) 孟二冬, 162쪽.

www.kci.go.kr

非榮則利, 岐路之惑, 多由此也)」[41]

라고 지적하였다. 실지로 세상은 悠悠하고, 그 추구하는 바는 榮 아니면 利이며,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기로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의 世上 모습을 두고 보더라도, 이처럼 「그 추구하는 바는 榮 아니면 利」이며,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기로가 많음 곳」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7. 人生과 選擇－醉醒之間

陶淵明은 親舊[故人]가 <飮酒>시 제14수에서 베풀어진 술자리를 통하여 술 취함과 술 깨어남이 그의 人生에서 차지하는 比重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故人賞我趣, 친구가 내 趣向을 알아주어
挈壺相與至. 술을 준비하여 자리를 같이 한다.
班荊坐松下, 바닥에 자리를 깔고 소나무 아래에 앉아,
數斟已復醉. 술이 몇 차례 돌아가니 이미 얼근히 취해진다.
父老雜亂言, 父老가 서로 어지러이 말하기 시작하고
觴酌失行次. 술잔 돌리는 순서가 차례를 잃어버린다.
不覺知有我, 世上에 내가 있음을 모르니
安知物爲貴. 身外之物을 어찌 족히 귀히 여기랴?
悠悠迷所留, 酒中에서 정신이 몽롱해지니
酒中有深味. 酒中에는 절로 깊은 意味가 있다.[42]

41) 淸、陶必銓, ≪萸江詩話≫(≪陶淵明資料彙編≫, 185쪽)
42) 孟二冬은 이 詩의 槪要를, 「이 시는 친구들과 함께 유쾌하게 술 마시는 정경을 묘사한다. 그 뜻은 술 마시는 가운데 얻어지는 物我一體、超然物外하는 즐거움을 표현하려는데 있다(這首詩寫與友人暢飮, 旨在表現飮酒之中物我皆忘、超然物外的樂趣)」라고 요약했다. 163-164쪽.

www.kci.go.kr

이 詩의 內容을 간략히 整理해보면 다음과 같다.

「친구가 내 취향을 높이 사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초청해주었다. 소나무 아래에 자리를 깔고 몇 잔을 돌리는 사이에 이미 얼근히 취해져간다. 자리를 함께 한 父老들이 먼저 취하기 시작한다. 술 돌리는 순서가 흐트러진다는 것은 이미 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술에 취하여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대상이 귀한 줄을 어찌 알 것인가? 몽롱가게 취해가는 동안 술에 대한 미련도 짙어져가고, 술이 주는 깊은 의미도 절실해져간다.」

이 시의 重點은 마지막 4구에 있다. 도연명은「不覺知有我, 安知物爲貴」에서 我와 物[對象]을 대립시켜 생각한다. 도연명은 淸遠한 세계를 추구하고 稱心의 경지를 보물로 여긴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대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세상은 나와 대상의 대립과 조화 속에서 존재한다. 내가 없으면 대상도 없고, 또한 대상 없이 내가 존재할 수도 없다.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체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 내가 나를 버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버릴 때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물론 明의 張自烈은 ≪箋註陶淵明集≫卷三에서,

「사람들은 모두 연명의「世上에 내가 있음을 모르니, 身外之物을 어찌 족히 귀히 여기랴?」라는 시구를 읽고, 대체로 曠然物我之外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연명의 가슴속에 아무런 거리낄 바가 없다면, 응당 물아의 분별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시구의 어조는 미미하게 脫化한 듯하지만, 아무래도 물아가 존재하는 것 같다(人皆以淵明「不覺知有我, 安知物爲貴」, 蓋曠然物我之外. 愚按淵明胸中無罣礙, 當不以物我分別, 但此兩句語氣微少脫化, 終覺有個物我在.)」[43]

43) 明、張自烈, ≪箋註陶淵明集≫卷三.(≪陶淵明資料彙編≫, 187쪽)

www.kci.go.kr

라고 지적하여, 도연명의 物我超逸에 대한 순수성과 철저성을 의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상과 나 사이의 대립을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도연명처럼 자아를 버리기 위한 극기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 시도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도연명은 이 시 속에서 술을 통한 초현실 세계의 추구를 시도하고 있다. 일찍이 村上嘉實은 이 점에 대하여 ≪六朝思想史研究≫에서,

> 「도날드 홀드만씨는 <阮籍과 嵇康의 道家思想>(≪東方宗教≫ 10집)에서 陶淵明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도연명이 이 세상의 美와 歡樂을 확대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술을 사용한 것, 그에게 있어서는 술이 이 세상의 비애와 환멸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스뻬로는 竹林七賢에 대하여 술은 그들을『世上 밖에, 그리고 世上 위에 존재하게 하였다』(Le Taoism. 67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다.」[44]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도연명의 이 시와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술을 통하여 物我의 대립과 갈등을 조화시켜나가고, 나아가서는 그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초월함으로서 이 세상의 비애와 환멸을 누그러뜨리게 하고자 했던 심경을 이해할 수 있다. 도연명이야말로 이 시 가운데 나타나는 「酒中有深味」의 경지를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이 경지가 아마도 酒中의 眞實[인비노 베르타스]이라는 경지와 비슷할 것이다), 그것이 도연명에 있어서 어쩌면 道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바가 있다.

8. 現實과 理想 사이

도연명은 <飮酒>시 제16수를 통하여 現實과 理想 사이의 모순과 갈등 혹은 거리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살피고 있으며, 아울러 난세에 처하여 살

44) 村上嘉實, ≪六朝思想史研究≫, (京都: 平樂寺書店), 1976. 30쪽.

www.kci.go.kr

아가면서 知音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애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少年罕人事, 어려서부터 남들과 사귀지 않고
遊好在六經. 일심으로 六經 읽기를 좋아하였다.
行行向不惑, 나이가 不惑에 접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淹留遂無成. 끝내 아무 것도 이루어놓은 바 없게 되었다.
竟抱固窮節, 끝까지 固窮節을 감싸 안고 살아가니
飢寒飽所更. 굶주림과 추위를 실컷 맛보고 있다.
弊廬交悲風, 弊廬에는 바람 부는 소리 크게 들리고
荒草沒前庭. 거칠은 잡초가 앞마당을 덮었다.
披褐守長夜, 갈옷을 걸치고 기나긴 밤 지키는데
晨雞不肯鳴. 새벽닭은 도저히 울려 하지 않는다.
孟公不在玆, 孟公이 여기 없으니
終以翳吾情. 끝내 나의 심경은 우울해지고 만다.[45]

만약 세상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일용할 糧食과 心中의 自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양식에 대한 소망이 발전하면 부귀공명에 대한 욕망으로 된다. 그리고 부귀공명에 대한 욕망이 강해질수록 심중의 자적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심중의 자적이 먼저냐, 부귀공명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지식인에게 仕隱 간의 갈등을 야기시킨다. 故 崔珍源 敎授는 ≪國文學과 自然≫가운데서 이런 仕隱 간의 갈등에 대하여, 「憧憬은 歸去來에 가 있고, 理念은 經國濟民에 가 있다.」[46]라는 말로 압축하여 지적했다. 이것이 士人에게 주어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 시에서 도연명은 어려서부터 세상 사람과 사귀지 않고 六經 읽기

45) 孟二冬은 이 시의 개요를, 「이 시는 "자신이 소년시절에 매우 포부가 컸지만, 늙어서도 아무 것도 이루어 놓은 바가 없다. 일생 동안 固窮節을 감싸 안고, 굶주림과 추위[飢寒]의 고통을 실컷 맛보았다. 시인이 서글프게 생각한 것은 세상에 결코 孟公 같은 知音이 없다는 사실이었다(這首詩寫自己少年時頗有壯志, 然老而無成, 一生抱定固窮之節, 飽受飢寒之苦, 以至于現在. 但詩人所感到悲哀的是, 世上竟無知音.)」라고 요약했다. 166쪽.

46)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서울: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86. 34쪽.

www.kci.go.kr

만을 좋아했다. 세상 사람과 사귀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거나, 적어도 六經 읽기보다는 덜 좋아했음을 의미한다. 또 그가 六經 읽기를 세상 사람들과 사귀기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그의 기질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그의 나이는 不惑에 이르렀고, 「淹留遂無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도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어놓고 싶은 포부를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明의 張自烈은 「『一心으로 六經 읽기를 좋아하였다』에서부터 淵明이 은둔 장소에서 소득을 거두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煙霞痼疾일 뿐만은 아니었다(『游好在六經』, 見淵明隱處有獲, 非烟霞痼疾而已)」[47] 라고 말했다. 도연명 자신은 사후에 그가 張自烈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득을 거둘 수 있었을지, 즉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 될 수 있었을지 몰랐다.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부단히 갈등하고 고뇌하면서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다. 「竟抱固窮節, 飢寒飽所更」이라는 두 시구는, 그가 직면한 固窮節과 飢寒 사이의 첨예한 대립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대립이 첨예하면 할수록 문학에 있어서의 성과가 탁월해지게 된다. 이 시의 후반부는 더욱 더 절실하게 불운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바람 소리 거세게 몰아치는 일그러져 가는 집, 잡초가 뒤덮고 있는 앞마당은 가난의 실상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긴긴 겨울밤에 그는 추운 갈옷만 입은 채로 새벽닭 우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춥고 배고픈 도연명의 모습이 여실하고 생생하다. 다만 생각나는 것은 孟公과 같은 知音의 존재다. 知音은 정신적 반려자이며,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節操의 支柱이다. 明의 黃文煥은 이 시점의 도연명 심경에 대하여,

> 「어찌 끝내 이루어놓은 바가 없으랴? 避俗自許함으로서, 용속한 세인들의 길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끝내 아무 것도 이루어놓은 바 없게 되었다고 하니, 경전을 읽으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성현의 심오한 경지를 깊이 체득하지 못한 탓이다(淹留豈無成, 以避俗自許, 不墜庸衆之徑

47) 明 張自烈輯, ≪箋註陶淵明集≫卷三. (≪陶淵明資料彙編≫, 189쪽)

www.kci.go.kr

也. 淹留遂無成, 以讀經自慚, 未深聖賢之奧也).」[48]

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성현의 심오한 경지를 깊이 체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욕망의 뿌리까지 잘라내어 버려야 하는 고통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욕망은 생명의 원동력이며, 나아가 문학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삶에서 이를 어찌 완벽하게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것인가? 김현은 ≪젊은 詩人들의 상상 세계≫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든 慾望을 다 채우려는 욕망이 있다. 욕망은 현실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욕망의 욕망은 제어될 수 없다. 욕망의 욕망은 욕망의 뿌리다. 뿌리를 자르면, 욕망이 없어질 수 있다. 東洋의 위대한 禪師들은, 그 욕망의 부리를 짜르라고 모두 다 같이 말한다. 짜른다라는 말의 욕망까지를 짜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옳다. 그러나 나는 위대한 禪師가 아니다. 위대한 禪師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욕망의 욕망은 더욱 자란다.」[49]

라고 말하면서, 욕망을 단절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의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도연명이 위대한 것은 성현으로서나 철학자로서가 아니다. 그는 시인으로 위대할 뿐이며, 우리는 그로서 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시인이었으며 시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염원했으며, 그런 점에서 도연명은 김현의 생각과 일치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학이 문학일 수 있음은 철학이나 역사가 아닌 문학만이 지니고 있는 문학 고유의 세계 혹은 공간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역사나 철학이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독자적인 부분이다. 김현은 같은 책에서,

48) 明、黃文煥, ≪陶詩析義≫卷三. (≪陶淵明資料彙編≫, 189쪽)
49) 김현 시론집, ≪젊은 詩人들의 상상 세계≫(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13쪽.

www.kci.go.kr

세 개의 벽과 두 개의 문 뒤에서
당신은 내 생각을 조금도 않지만
하지만 돌도 더위도 추위도
또한 당신도 막을 수는 없지
내 맘대로 내 속에서
마치 계절이 오가며
땅 위에 숲을 만들 듯
내가 당신을 부셨다 다시 맞추는 것을

— 쥘 시페르비엘

이라는 시를 책의 목차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의도 역시 문학 특히 詩가 지니는 독자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것은 아마도 詩的 想像力이 지닌 위대한 文學的 資産일 것이다.

9. 人生의 苦惱－顯默之間

도연명은 <飮酒>시 제18수를 통하여 난세에 처하여 살아가는 지식인이 顯默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子雲性嗜好,	子雲은 본성이 술을 좋아했지만
家貧無由得.	집안이 가난하여 구할 수가 없었다.
時賴好事人,	가끔 好事人에게 의지하게 되었으니
載醪祛所惑.	술을 가지고 와서 의혹을 풀고자 했다.
觴來爲之盡,	술잔이 오면 거침없이 다 마셔버렸고
是諮無物塞.	묻는 말에 막히는 바가 없었다.
有時不肯言,	그러나 때로는 말하고자 아니하였으니
豈不在伐國.	그 어찌 남의 나라 침범하는 일 아니었겠는가?
仁者用其心,	어진 자는 처신에 사려가 깊었으니
何嘗失顯默.	顯默에 어찌 틀림이 있었으리?[50]

50) 맹이동은 이 시의 개요를, 「이 시는 각각 양웅과 유하혜를 통하여 자기 자신

www.kci.go.kr

사람이 무언가를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면서 말조심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시대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지식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도연명은 이 시에서 揚雄과 柳下惠라는 두 지식인을 들어 자기 자신에 비유하고 있다. 술을 좋아하지만 가난하여 자주 마시지 못한다는 점에서 揚雄과 비슷하다. 말조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점에서 柳下惠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렇게 말조심한다고 하면서도 필경 말조심하지 못하는 것이 지식인의 숙명이다. 그래서 말은 하되 비유를 통하여 쉽사리 그 내막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털어놓는다.

이 시 가운데 보이는 「時賴好事人, 載醪祛所惑. 觴來爲之盡, 是諮無物塞」라는 시구는 지식인의 자부심을 보여준다. 好事人은 궁금증을 풀려고 찾아온 사람이다. 무엇이든지 다 대답할 수 있는 식견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揚雄은 지식인의 典型形象이라 할 수 있다. 孟子가 士人을 두고 「爲王者師」[51]라고 말한 것과 지식인의 자부심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일에는 도움 주기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反戰思想은 지식인의 양심이다. 淸의 蔣薰은,

>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연중에 劉宋을 新莽에 비유한 것이다. 대저 분명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不肯言伐國, 隱然以劉宋比新莽, 蓋難言之矣)」[52]

에 비유한다. 한편으로는 집안이 가난하여 마실 술이 없지만 다행히 친구의 도움을 받아 마신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침묵하고 국사를 논하지 않음으로서, 재앙을 멀리 하고 몸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뜻을 표명한다. 그 가운데에서 나라의 앞날에 대한 깊은 근심을 은연중에 그려낸다(這首詩分別以揚雄和柳下惠自況, 一方面說明家貧無酒, 幸賴友人饋贈. 另一方面標示閉口不談國事, 以遠禍全身. 其中暗寓對國事前途的深憂)」라고 요약했다. 168쪽.

51) 宋, 朱熹撰, ≪孟子集注≫, 藤文公上 : 「有王者起, 必來取法, 是爲王者師也.」 濟南: 齊魯書社, 1996. 66쪽.

52) 淸、蔣薰評, ≪陶淵明詩集≫卷三. 193쪽.

www.kci.go.kr

라고 지적했다. 중국 전통사회 지식인이었던 도연명의 입장에서 볼 때, 劉裕의 찬탈행위처럼 수용하고 감내하기 힘든 일도 없었을 것이다.

10. 亂世 속의 人生

도연명은 <飮酒>시 제20수를 통하여 난세 지식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자세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伏羲、神農 시대를 태평성대로 이상화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

羲農去我久, 伏羲、神農은 이미 요원하니
擧世少復眞. 온 세상에 더 이상 소박한 자 드물었다.
汲汲魯中叟, 魯나라 노인은 마음이 급급하여
彌縫使其淳. 이지러진 데를 기워 순수하게 만들었다.
鳳鳥雖不至, 봉황새는 비록 날아오지 않았으나
禮樂暫得新. 禮樂은 잠시 새롭게 활기를 찾게 되었다.
洙泗輟微響, 洙泗에 微響이 끊어졌다가
漂流逮狂秦. 狂秦까지 이르도록 漂流하였다.
詩書復何罪, 詩書에게 또 무슨 죄가 있는가?
一朝成灰塵. 하루아침에 재와 먼지로 화하고 말았다.
區區諸老翁, 몇몇 늙은 儒生은
爲事誠殷勤. 經學의 전수에 참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如何絶世下, 난세에 처하여 어찌 할 것인가?
六籍無一親. 六經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終日馳車走, 종일 수레 몰고 다녀도
不見所問津. 길을 묻는 자 찾아볼 수 없구나.
若復不快飮, 만약 다시 또 통쾌하게 마시지 않는다면
空負頭上巾. 머리 위의 두건을 부질없게 만드는 것.
但恨多謬誤, 다만 이 말에 오류가 많을 것이니
君當恕醉人. 그대는 응당 술 취한 이 몸 용서하시라.[53]

53) 孟二冬은 이 시의 개요를, 「이 시는 역사적 상념을 바탕으로 삼아 목전의 세

www.kci.go.kr

이 시는 100자에 해당하는 長詩이다. 淸의 方東樹가 「이 시는 (음주시) 20편을 총괄하며, 마지막 2구는 또한 제목을 총괄한다(此首收束二十篇, 而末二句又收足題面)」[54]라고 말했듯이, 이 시는 <飮酒>시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이 시는 시의 분량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 시는 「羲農去我久, 擧世少復眞. 汲汲魯中叟, 彌縫使其淳」라는 시구들로부터 시작된다. 태평성대와 난세를 대비시키고 있으며, 孔子의 汲汲해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도 공자를 배워 이 세상을 기워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절실한 소망을 드러낸다. 「彌縫」이라는 두 글자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도연명은 그가 살아간 세상을 갈갈이 찢어진 옷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갈갈이 찢어진 옷과 같은 세상에 대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자책하고 절망한다. 譚元春은 이와 같은 도연명의 심경에 대하여,

> 「한 조각의 뜨거운 가슴[熱腸]은 가히 孔子贊을 지을만하다. ……공자는 위대한 성인이다. 미봉이라는 글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면 감히 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능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一片熱腸, 可作孔子贊. ……孔子大聖人也, 下彌縫二字, 他人不敢且不能.)」[55]

라고 말했다. 도연명에 대하여 無比의 敬畏心을 나타내고 있다. 淸의 沈德潛은,

> 「晉나라 사람들의 시에서, 曠達한 자는 老、莊을 이끌어 들였고, 繁縟한 자는 班、揚을 이끌어 들였다. 그런데 陶公은 오로지 ≪論語≫만 사용하였

상풍속이 날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개탄하고 있으며, 아득한 상고의 伏羲、神農시대에 있었던 진실하고 순박한 기풍을 사모한다고 함으로서, 시인의 현실에 대한 강렬한 불만의 정서를 표현하였다(這首詩以歷史的思考爲基礎, 慨嘆眼前世風日下, 而思慕遠古伏羲、神農時的眞朴之風, 表現了詩人對現實强烈不滿的情緖)」라고 요약했다.

54) 淸 方東樹, ≪昭昧詹言≫卷四. (≪陶淵明資料彙編≫, 200쪽)

55) 明 鍾伯敬・譚元春評選, ≪古詩歸≫卷9. (≪陶淵明資料彙編≫, 196-197쪽)

www.kci.go.kr

다(晉人詩, 曠達者徵引老、莊, 繁縟者徵引班、揚, 而陶公專用論語)」[56]

라고 하였고, 또

「漢人 이후부터 宋儒 이전까지, 가히 聖門의 제자로 추대할만한 자는 연명이 있을 뿐이다(漢人以下, 宋儒以前, 可推聖門弟子者, 淵明也)」[57]

라고 말했다. 심덕잠 역시 담원춘과 마찬가지로 도연명을 매우 존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연명은 이어서 孔子 및 그 이후의 시대상황에 대하여 서술하는데, 그것은 난세에 대한 도연명의 관점이기도 하다. 비록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봉황은 날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聖人 孔子의 노력에 의하여 禮樂이라는 도덕적 근간은 마련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狂亂의 秦나라에 이르면 詩書가 잿더미로 되어버리는 참담한 국면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漢代 초기 伏生、申培、轅固生、韓嬰 등의 儒生들이 경학의 전수에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시대의 狂風은 그 미미한 싹마저 밟아버려서 지금은 아무도 六經을 가까이하지 않는다고 개탄한다. 이와 같은 도연명의 심경을 두고, 그의 학문은 경학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58]

이어서 도연명은 「亂世에 처하여 어찌 할 것인가?(如何絶世下)」라고 질문한다. 이제 시대상황은 아무도 정의나 양심에 대하여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 六經을 가까이 하는 자도 없고, 길을 묻는 자도 없다. 「問津」은 ≪論語≫ 微子篇에 나오는 말이다. 孔子가 밭을 갈고 있는 長沮、桀溺의

56) 淸、沈德潛選, ≪古詩源≫卷9. (≪陶淵明資料彙編≫, 199쪽)
57) 上同.
58) 「西山眞氏가 말하기를, 淵明의 學問은 經學[經術]으로부터 왔다. 지금 이 詩에서 서술한 것을 보면, 또한 대체로 알 수 있다.(西山眞氏謂淵明之學自經術中來. 今觀此詩所述, 蓋亦可見)」(元、劉履, ≪選詩補註≫卷五) (≪陶淵明資料彙編≫, 196쪽)

www.kci.go.kr

곁을 지나가다가, 子路에게 나루터 있는 곳을 묻게 했던 사실에서부터 길을 묻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問津은 인생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히 제기되어야 하고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질문, 곧 「인생의 나아가야 할 바 그 정확한 길을 묻는」 질문이다. 宋의 湯漢은,

> 「길을 묻는 자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은 대체로 沮、溺을 자신에 비유하고, 孔子의 무리가 없음을 한탄한 것이다(不見所問津, 蓋自況於沮、溺, 而歎世無孔子徒也)」[59]

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도연명은 이 시의 마지막 결론으로, 「若復不快飮, 空負頭上巾. 但恨多謬誤, 君當恕醉人」라고 말한다. 술 마시는 장면을 통하여 이 20수에 달하는 <飮酒>詩라는 組詩의 매듭을 짓고 있다.

三. 結 語

지금까지 도연명의 <飮酒>詩 10수를 중심으로 그 가운데에 나타난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들, 곧 인생과 연관된 世間名、孤獨、是非、仕隱、現實과 理想、亂世 등이 지니는 의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金昌煥은 ≪陶淵明詩硏究≫의 국문초록에서,

> 「陶淵明이 살았던 시기는 혼란하고 不義가 득세한 晉宋의 왕조 교체기였다.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좌절감으로 자포자기하기 쉽다. 그러나 陶淵明은 맑은 理性을 유지한 채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진실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다. 그것은 現實과 社會를 중시하는 儒家思想과, 自然을 숭상하고 個人을 중시하는 道家思想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주로 儒家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 사상적 바탕을 이루었고, 歸隱 후에는 道家에 경도되어 老子와 莊子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아 자신의 사상 체계

59) 宋、湯漢註, ≪陶靖節先生詩≫卷3. (≪陶淵明資料彙編≫, 196쪽)

www.kci.go.kr

를 이루었는데, 특히 莊子의 영향이 지대하였다.」[60]

라고 도연명의 人生과 그가 섭렵한 思想에 대하여 간결명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도연명은 그의 시를 통하여 그가 살아간 시대와 그가 바라본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비록 이 <飮酒>詩 20수는 표면상으로는 음주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시대와 인생에 대한 절망과 관조의 감회가 동시에 녹아 있다. 그의 시는 激情的이면서도 淸遠한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다. 격정을 통하여 청원을 추구하고자 했고, 청원을 통하여 격정을 위무하고자 했다. 그는 晉、宋 교체기라는 난세를 살아갔으며, 전란의 참상을 직접 목도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전란의 당연한 결과인 飢饉과 疾病에 시달리면서 살아갔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그에게 있어 승화하여 시로 꽃피어나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그에게 밀어닥친 불행은 단순한 불행만으로 그친 것은 아니었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난세라는 연못에서 피어난 한 송이 초연하고 아름다운 연꽃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난세에 처하여 살아가면서 부단히 난세의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난세를 살아가는 人生의 의미에 대하여 캐묻고 캐물었다. 그는 타고난 시인기질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십분 발휘하여 中國文學史의 새로운 場을 열어나갔다. 그는 이를테면 死六臣처럼 괴롭게 살다 결국은 감연히 죽음을 택한 屈原이라는 인물형상의 뒤를 이어, 마찬가지로 난세를 살아갔지만 생육신처럼 꿋꿋하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물형상을 스스로 만들어나갔다. 그는 죽음에 대하여 남달리 깊이 생각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삶을 사랑하고 삶에서 진실한 의미를 끝까지 추구하고자 노력했다.

<飮酒>詩 20수 가운데에도 많은 과거의 지식인들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商山四皓、顔回、榮啓期、張摯、楊倫 등이 등장한다. 그는 시비가 顚

60) 金昌煥, ≪陶淵明詩硏究≫, 서울대학교 博士論文, 1999.8.

www.kci.go.kr

倒되고 混淆된 난세 속에서 과거의 인물들을 통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찾듯 삶의 바른 방향을 찾고자 했다. 그는 자신을 길 잃은 새로 비유하기도 했고, 顔回의 安貧樂道와 榮啓期의 知足에 뒤이어 稱心의 경지를 모색하고 개척해나가기도 했다. 비록 고독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과거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역경을 묵묵히 감내해나갔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시인의 모습을 감추지 않았으며, 또한 높은 산마루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오연한 기세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의 飮酒詩 가운데에는 「詩人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시어들이 등장한다. 그런 점에서, 詩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詩人論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긍정하며 끝까지 자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는 타고난 시인이었다. 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난세의 흙먼지 속에서 끝없이 길을 찾고자 하였고 길을 묻고자 하였다. ≪論語≫ 微子篇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問津」이라는 말은 인생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히 제기되어야 하는 테마였으며, 암담한 가운데서도 살아가야만 하는 亂世文人들의 갈망과 시련을 함께 담은 시어이기도 했다.

元代散曲을 공부하다가 도연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한 시대의 흐름에서 한 개인의 삶 속으로 연구범위를 좁혀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元代나 魏晉시대나 난세이기는 매한가지다. 도연명에 대하여 글을 쓸 때마다 새롭게 배우는 바가 많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도연명이 위대한 시인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도연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도연명에 대한 공부는 원대산곡의 연구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 시대의 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은 다른 한 시대의 유사한 흐름을 살피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필자가 뒤늦게나마 陶淵明學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금이나마 배움을 구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www.kci.go.kr

<參考文獻>

楊伯峻 編著, ≪論語譯注≫ 雍也篇, (臺北: 明倫出版社), 1983.
≪左傳≫ 襄公 31년, (臺北: 藝文印書館), 1976.
≪史記≫, (臺北: 鼎文書局), 1978.
≪晉書≫, (臺北: 鼎文書局), 1979.
≪後漢書≫, (臺北: 鼎文書局), 1978.
莊萬壽 譯, ≪新譯 列子讀本≫, (臺北: 三民書局), 1991.
≪李太白全集≫, (臺北: 九思出版社), 1979
朱熹撰, ≪孟子集注≫, (臺北: 齊魯書社), 1996.
古典文學研究資料彙編, 陶淵明資料彙編, (北京: 中華書局), 2004.
孟二冬, ≪陶淵明集譯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6.
郭銀田, ≪田園詩人 陶淵明≫, (臺北: 桂冠圖書公司), 1981.
隋樹森, ≪全元散曲≫, (北京: 中華書局), 2000.
村上嘉實, ≪六朝思想史研究≫, (京都: 平樂寺書店), 1976.
권영민 엮음, ≪해방 40년의 문학≫, 3, 詩, (서울: 민음사), 1985.
李炯基, ≪돌베개의 詩≫, (서울: 文苑社), 1971.
김현, ≪젊은 詩人들의 상상 세계≫,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千祥炳,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 (서울: 오상출판사), 1988.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서울: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86.
金昌煥, ≪陶淵明詩研究≫, 서울대학교 博士論文, 1999.8.
尹壽榮, <陶淵明의 飮酒詩에 나타난 人生과 自然觀>, ≪中國學論叢≫, 17집, 韓國中國文化學會, 2004.6.

www.kci.go.kr

<中文提要>

陶淵明是中國有名的田園詩人。他的詩裏面有其獨特的特性。本稿特別以他的飮酒詩二十首中選十首爲討論範圍, 考察其中所反映的幾種人生的意義。他也在飮酒詩裏, 以詠懷的手法來描寫亂世文人的心境。

1. 在<飮酒>其三【人生與選擇－飮酒與世間名】裏面, 陶淵明描寫了兩種人生的方向, 就是追求飮酒[超現實的世界]和追求世間名[現實的世界]的方向. 而如果在陶淵明的立場上看, 當然是以飮酒來追求超現實的淸遠世界爲好的。

2. 在<飮酒>其四【孤獨與人生】裏面, 陶淵明以自己來比喩失群鳥, 而想描寫亂世文人孤獨寂寞的心境. 此際他所遇見的孤生松就是亂世知音, 是不可多得的精神上的依靠與支柱。

3. 在<飮酒>其六【是非與人生】裏面, 描寫了在人世裏最使人苦惱的是非問題. 人世裏世人常以附和雷同的態度來把是非顚倒混淆起來. 這是亂世裏最常見而最常發生的現象. 而在這個時候能脫離這是非之渦的, 陶淵明以爲只是達士而已。

4. 在<飮酒>其十【人生與選擇－仕隱之間】裏面, 陶淵明回想以前他自己所遠遊的情況, 而他以爲人生裏的眞正的苦惱不在飢餓而在心不平安. 他說「恐此非名計, 息駕歸閑居」. 這是他所得到的結論, 是出仕不如歸隱的。

5. 在<飮酒>其十一【人生與選擇－身後名與枯槁之間】裏面, 陶淵明以爲在人生裏最重要的是稱心(適志)的, 不是生前的富貴榮華或身後的名聲. 他以爲人一死就寶物似的身體也消滅了, 因此裸葬也沒有甚麼不可接受的。

www.kci.go.kr

6. 在<飮酒>其十二【隱遁與人生－兩位隱士】裏面, 陶淵明描寫了張摯和楊倫這兩位隱士所採取的人生態度, 而陶淵明以爲 「去去當奚道, 世俗久相欺」, 人世是不可信賴的. 因此還是隱遁起來比人世上混的好。

7. 在<飮酒>其十四【人生與選擇－醉醒之間】裏面, 陶淵明以爲人生可分爲醉者與醒者, 而有時醉者比醒者更淸醒的. 陶淵明自己就是醉者, 可是他比一般醒者更淸醒的. 陶淵明在這首詩裏說,「悠悠迷所留, 醉中有深味.」這就是陶淵明飮酒詩的最高境界。

8. 在<飮酒>其十六【現實與理想之間】裏面, 陶淵明描寫了現實生活裏的苦楚與理想世界裏的最高境界. 他以爲他所追求的理想世界(六經裏的世界), 在亂世現實裏絶對不能實現的, 而他只能抱固窮節(獨善其身)生活, 只能忍受着飢寒而生活。

9. 在<飮酒>其十八【人生的苦惱－顯默之間】裏面, 陶淵明所描寫的是說話和不能說話之間的問題. 他所生活的時代是是非顚倒而混淆的亂世, 是人的生命如草芥似的消滅的時代. 他借着揚雄和柳下惠兩位人物來表示顯默之間的明哲保身之理。

10. 在<飮酒>其二十【亂世裏的人生】, 是飮酒詩二十篇的總體結論, 也是能達一百字的長詩. 在這首詩裏, 陶淵明明顯地表明了以飮酒來逃避亂世, 追求淸遠世界, 摸索稱心境界的內容和實質。

주제어 : 陶淵明, 飮酒, 隱士, 隱遁, 固窮節, 道喪, 世間名, 失群鳥, 孤生松, 是非, 歸隱, 身後名, 稱心, 飢寒

www.kci.go.kr